11월 1(월) / 행 10-12

▶ 내용요약 :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다. 이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였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베드로를 비난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는지를 보고했다. 한편 흩어진 자들로 인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 이에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 12장에서는 헤롯 왕은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베드로 또한 붙잡혀서 투옥되었으나, 천사의 인도로 옥에서 나왔다.

▶ 질문 :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첫 번째 교회는? (11장)

▶ 생각하기 : 핍박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퍼져나갔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령님의 능력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능력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데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한 복음전도자로 나아가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빌 4:11-13을 읽으라)

11월 2일(화) / 행 13-16

▶ 내용요약 : 사도행전 13-14장에는 바울의 제 1차 선교여행이 기록되어 있다.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물론 박해도 만만치 않았으나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한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었고, 이로 인해 지역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탄식하며 자신들에게 숭배하지 못하게 했다. 15장에서는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를 강조하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는 1차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고, 바울의 증언과 베드로의 연설, 그리고 야고보의 선언에 의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에 대한 견해차이로 서로 갈라졌고, 16장으로 이어지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는 실라가 동행하게 되었다.

▶ 질문 :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였는가? (15장)

▶ 생각하기 : 육신의 할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갈 6:12-15를 읽으라)

11월 3일(수) / 행 17-20

▶ 내용요약 : 사도행전 17-18장에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이어진다. 그들은 베뢰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고, 그 결과 적지 않은 귀부인과 남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후 그들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후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18장 후반부에 이어서 19-20장에는 바울의 제 3차 선교여행이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고, 이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이들이 생업의 위협을 느끼고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바울은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많은 이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

▶ 질문 :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 부부는? (18장)

▶ 생각하기 : 바울의 복음전파로 인해 개인의 구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복음에는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11월 4일(목) / 행 21-24

▶ 내용요약 :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제자들의 전송을 받아 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특별히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는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결박을 예언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붙잡혔다. 22장에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히브리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거부하며 더욱 큰 소동을 일으켰다. 이후 23장에서 바울은 다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고,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했다. 이후 사십여 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금식할 것을 맹세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다. 그리고 24장에서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들과 다시 변론을 하게 되었다.

▶ 질문 : 천부장은 바울을 누구에게로 보냈는가? (23-24장)

▶ 생각하기 : 붙잡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11월 5일(금) / 행 25-28

▶ 내용요약 : 사도행전 25장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고, 바울의 변호를 듣게 되었다.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26장에서는 로마로 압송되기 전 기회를 얻어, 아그립바 왕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후 27장에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바울의 말대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한편 28장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표류한 멜리데라는 섬에서도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후 바울은 다른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비록 가택연금의 신세였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 질문 : 바울이 만난 풍랑의 이름은? (27장)

▶ 생각하기 : 그리스도인은 소망과 비전의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든지 관계가 없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목격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이루실 것이다.

11월 6일(토) / 롬 1-3

▶ 내용요약 :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라고 비유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의 진리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동시에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로마교회에 쓴 편지였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 또한 많이 따르고 있다. 1장에서 바울은 서문과 더불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한 후에 본격적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해 논하기 시작한다. 이 논의는 2-3장에서도 계속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바울의 선언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유죄선고를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1장)

> “(　　　)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　　　)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 생각하기 : 우리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실 뿐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의사이시기 때문이다.

11월 7일(일) / 롬 4-6

▶ 내용요약 :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 논증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 또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았다. 또한 할례 또한 그 이후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는 아브라함 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함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후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가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 교훈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어서 바울은 6장에서 은혜와 죄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죄를 짓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의의 종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6장)

> “죄의 삯은 (　　　)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　　　)이니라”

▶ 생각하기 :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처럼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세계관으로부터 시작된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자.